

---

 논문
 

---

## 장 보댕과 잉글랜드 혁명 초기의 주권론 비교 연구\*

— 장 보댕의 주권론의 수용과 변용을 중심으로 —

임 승 휘

“국가는 몽상이다.[...] 전혀 아무 것도 아닌 것의 상징, 공허함, 육신 없는 정신, 하늘의 구름으로 하는 놀이. 하지만 국가는 전쟁을 일으키고 인민을 감옥에 가두지 않는가?”

J. Le Carré, *Call for the Dead*

I. 들어가며

II. 장 보댕의 수용과 용례

III. 창조적 전유의 시도

IV. 나오며: 잉글랜드의 법사상과 보댕의 주권

---

### 국문초록

주권 개념의 부재는 16세기 이후 잉글랜드 정치사상이 지닌 특징들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1576년 장 보댕의 ‘근대적’ 주권 개념이 제시되었을 무렵, 최초의 근대국가로 평가받는 섬나라의 ‘코먼웰스’는 근대국가와 쌍을 이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주권 개념에 대해 뚜렷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역설을 보여준다. 16세기 말 잉글랜드에 소개된 프랑스 장 보댕의 주권 개념은 잉글랜드 혁명 기간 왕당파와 의회파 저자들에게 의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지만, ‘의회 안의 왕’이라는 잉글랜드 고유의 정치적 개념 그리고 보통법 사상은 불가분성과 절대성을 핵심으로 하는 보댕의 주권 개념이 온전히 적용되기 힘든 정치적 콘텍스트를 제공했다. 17세기 중반 잉글랜드의 정치적 논의는 혁명이라는 역동적인 콘텍스트에 영향을 받았지만, 어쨌든 그 영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보댕의 주권론은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보댕의 주권 개념은 정교한 잉글랜드 근대국가의 틀 속에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은 정치적 구호로 정의되어 정치적 대립 상황 속에서 정치권력의 최종적 소재의 문제로 환원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1017646).

## I. 들어가며

주권 개념의 부재 현상은 16세기 이후 잉글랜드 정치사상이 지닌 특징들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sup>1)</sup> 1576년 장 보댕의 ‘근대적’ 주권 개념이 제시되었을 무렵, 최초의 근대국가로 평가받는 섬나라의 ‘코먼웰스’는 근대국가와 쌍을 이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주권 개념에 대해 뚜렷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역설을 보여준다. 논리적 일관성과 개념적 통일성을 갖춘 정치이론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보여주는 이러한 차이는 분명 두 나라의 상이한 역사적 조건에서 비롯된다.

절대성과 불가분성을 핵심으로 하는 보댕의 ‘근대적’ 주권 이론은 중세 정치사상 전통과의 단절을 의미했다. 그는 신성로마제국과 교황의 종주권 요구로부터 주권 국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국가론』 1서 9장에서 보댕은 많은 유럽 국가들이 교황의 봉토라는 교황청 법률가들의 주장과 교회의 권위가 국가의 세속적 권위보다 우월하다는 교황 겔라시우스의 주장을 비판하는데,<sup>2)</sup> 그의 주권 이론은 국왕이 법에 따라, 즉 신법과 자연법, 그리고 관습에 따라 통치한다는 중세적 관점과 단절한다.<sup>3)</sup> 중세법 전통에 따르자면, 왕은 법을 존중해야 했

1) Ellen Meiksins Wood, *The Pristine Culture of Capitalism: A Historical Essay on Old Regimes and Modern States*(London: Verso, 1991), pp. 43-45 ; 임승휘, 『16세기 후반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국가 개념 비교연구: 토머스 스미스(Thomas Smith)와 장 보댕(Jean Bodin)의 국가론을 중심으로』, 『이화사학』 53집(2016), 291-329쪽.

2) 장 보댕,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I, 나정원 역(아카넷, 2013), 354-358쪽.

3) Fritz Kern, *Kingship and Law in the Middle Ages*, S. B. Chrimes (trans.)(Oxford: Blackwell, 1968); J. Franklin, “Jean Bodin and the End of Medieval Constitutionalism”; Ralph E. Giesey, “Medieval Jurisprudence in Bodin’s Concept of Sovereignty”, H. Denzer (ed.), *Jean Bodin: Verhandlungen der internationalen Bodin Tagung in München*(München: Verlag C. H. Beck, 1973), pp. 151-186. 케네스 맥리(Kenneth McRae)는 보댕이 “국민국가 또는 민족주의의 선전자라기보다는 선구자”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Kenneth Douglas McRae, “Bodin’s sense of

고, 그렇지 않은 자는 폭군으로 간주되었지만, 보댕의 주권 개념은 이러한 전통에 도전했다. 그에 따르면, 왕이 신법과 자연법에 종속되는 것은 맞지만, 신법과 자연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신의 의지와 주권자의 양심에 관한 문제일 뿐이었다. 그리하여 보댕에게, 그리고 훗날 홉스에게도 그랬듯이, 법은 오로지 주권자의 명령으로 정의되었다. 보댕의 주권 이론은 종교내전 시기 프랑스가 직면했던 여러 문제들, 내전이라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해 왕국의 근간이 치명적으로 위태로워진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 읽힌다. 다시 말해 16세기말 장 보댕의 ‘근대적’ 주권 개념이 형성된 것은 당황스러운 정도로 전근대적이었던 프랑스의 정치권력의 한계가 극대화된 시기였다. 여전히 지역적인 관습과 파편화된 사법제도에 의해 제한된 입법권과 사법권,<sup>4)</sup> 즉 권력의 파편화는 보댕을 비롯하여, 이후 프랑스 절대주의 이론가들이 이데올로기적 대항물을 건설하던 시기의 이론적 토대를 이룬다.

한편, 해협 너머의 섬나라에서 주권 개념에 대한 논의는 프랑스보다 약 2세대 가량 늦은 시기에 등장한다. 이때까지 주권 개념은 잉글랜드인들의 관심을 끌만한 대상이 전혀 아니었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17세기 중엽 균형과 조화의 정치체라는 잉글랜드의 이상은 한계를 드러냈다.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려는 왕과 의회의 주장이 충돌하면서, 잉글랜드인들에게는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펼칠 전례 없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이 시기 출판된 방대한 양의 문건들은<sup>5)</sup> 오랫동안 무관심의 대상이었던 주권 개념이 잉글랜드 정치담론의 핵심 요소로 확립되기 위한 토양이자, 보댕과 그의 주권 개념을 발견하고 이를 잉글랜드의

---

nationality”, in *Jean Bodin: actes du colloque interdisciplinaire d'Angers*(Angers: Presses l'Univ. d'Angers, 1985), pp. 155-156.

4) David Parker, *Class and State in Ancien Régime France: The Road to Modernity?* (London: Routledge, 1986), pp. 49-56.

5) 대략 22,000개에 달하는 팸플릿, 연설문, 설교문, 신문 기사들이 1640년과 1661년 사이에 쏟아졌다. Perez Zagorin은 혁명 기간에 나온 출판물들이 “1475년 잉글랜드에서 인쇄술이 시작된 이후 잉글랜드의 출판물의 총량”을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Perez Zagorin, *Rebels and Rulers, 1500-1600*(Cambridge, 1982), p. 149.

현실에 비추어 변용하기 위한 실험실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잉글랜드 혁명 초기에 양산된 몇몇 팸플릿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권 개념이 잉글랜드인들의 새로운 관심사가 된 배경과 이 과정에서 장 보댕의 주권론이 어떻게 변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보댕의 주권론이 잉글랜드로 수입된 과정과 프랑스 산 정치 개념이 내전 초기 잉글랜드에서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상이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보댕의 주권 개념이 어떻게 분절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 II. 장 보댕의 수용과 용례

보댕의 『국가론』 영역본은 리처드 놀즈(Richard Knolles)에 의해 1606년 출간되었다. 하지만 놀즈의 번역본이 나오기 이전에도 보댕의 저작은 프랑스어와 라틴어 판본으로 잉글랜드인들에게 알려진 상태였는데, 앙주공과 함께 1579년 잉글랜드를 방문한 보댕도 자신의 책이 잉글랜드에서 라틴어로 번역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치세 말부터 보댕의 주권론은 법률가나 의회 인사들에게 친숙한 개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잉글랜드인들은 프랑스 종교전쟁의 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보았고, 프랑스에서 출판된 다양한 문건들을 정치적 논쟁거리로 삼았다. 보댕의 저작 역시 이른 시기에 잉글랜드에 알려졌고, 필립 시드니(Philip Sidney)나 월터 롤리(Walter Raleigh)는 『국가론』이 옥스퍼드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17세기 잉글랜드에서 보댕의 명성은 꽤 확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초반 보댕의 영향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사례는 1648년 로버트 필머가 출간한 『국가론』의 요약본, 『절대적인 왕권의 필요성』(*The Necessity of the Absolute Power of All Kings: And in Particular of the Kings of England*)과 홉스의 『법의 기초』이다. 다른 사상가의 영향을 인정하지 않기로 유명한 홉스이지만, 그의 정치사상 3부작의 첫 권에 해당하는 이 책에서 보댕만큼은 예외적으로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홉스는 “주권이 분할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보댕을 인용하고 있는데<sup>6)</sup> 비록 홉스의 절대적 주권론이 그 전체에 있어서 보댕과 확연히 다르다고는 하지만<sup>7)</sup> 이러한 인용 사례는 당시 보댕이 잉글랜드에서 누리고 있던 지적 위상에 대한 반증으로 읽히기에 충분하다.

주권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두고 벌어진 1628년의 일화 역시 잉글랜드에서 보댕의 위상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 시기 보댕의 주권 개념은 의회파에 맞서 제임스 1세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거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권리청원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원은 “인민의 보호와 안녕 그리고 행복을 위해 국왕 전하에게 부여된 **주권적 권력**을 완성시키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첨가하고자 하면서 하원 의원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하원의 존 앨포드(John Alford)는 “주권적 권력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면서 “보댕에 따르면 그것은 무조건적인 권력”이므로 “**법이 국왕에게 허락한 왕위에 그것[주권적 권력]을 부여하도록 합시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에드워드 코크는 상원의 제안이 “우리의 모든 청원을 전복시킬 수 있는” 위협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권은 법의 일부이지만 ‘주권적 권력’이란 결코 의회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마

6) 보댕이 인용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주권적 권리들이 분할된 코먼웰스가 존재한다면, 보댕의 말대로(『국가론』 2권 1장) 이는 코먼웰스가 아니다. 그것은 부패한 코먼웰스일 뿐이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전체를 위한 입법권을 가진다면, 그는 이 법에 따라 마음대로 타인의 행동을 규제하고,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며, 세금을 징수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충성과 서약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고 군대를 지휘하는 권리를 지닌 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 이외의 다른 법이 제정되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주권이 분할된 것처럼 보이는 왕조국가가 오래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왕조국가가 그러한 지속성을 자랑하는 정부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주는 여러 차례 자신의 권력을 잃은 적이 있다. 하지만 진실은 주권의 권리란 주권자가 그것을 갖게 된 한 그 일부를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만 보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권리가 아니다.” Thomas Hobbes, *The Elements of Law, Natural and Politic*, Fernand Tönnies (ed.)(1889; reprint London: Frank Cass, 1969), II.8.7, pp. 172-173.

7) J. H. M. Salmon, “The Legacy of Jean Bodin: Absolutism, Populism or Constitutionalism?”,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17(1996), p. 521.

그나 카르타와 그밖의 다른 법령들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주권적 권력 없이도 이미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인할 수 없다.”<sup>8)</sup> 결국 상원은 이 문구를 삽입하려는 시도를 포기했다.



<Sovereignty 사용 빈도 1550~1700>

164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왕과 의회의 갈등이 심화되자, 주권이란 용어의 사용 빈도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sup>9)</sup> 1642년 5월 찰스 1세가 의회가 제출한 ‘19개 제안’을 거부하면서<sup>10)</sup> 촉발된 팸플릿

8) Robert C. Johnson, Mary Frear Keeler, Maija Jansson Cole, and William B. Bidwell (eds.), *Common Debates: 1628*, 3(New Haven, 1977), pp. 494-495.

9) 그래프는 1550년부터 1700년까지 잉글랜드에서 출판된 서적들 중 Google Library에 소장된 책들을 토대로 sovereignty란 단어의 노출 빈도를 연도별로 100,000단어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예를 들어 그래프에서 최고 빈도를 보인 1640년대 초반의 0.0008000%는 10만 단어당 80개의 sovereignty가 검색되었음을 의미한다.

[https://books.google.com/ngrams/graph?content=sovereignty&year\\_start=1550&year\\_end=1700&corpus=18&smoothing=3&share=&direct\\_url=t1%3B%2Csovereignty%3B%2C%0](https://books.google.com/ngrams/graph?content=sovereignty&year_start=1550&year_end=1700&corpus=18&smoothing=3&share=&direct_url=t1%3B%2Csovereignty%3B%2C%0)

10) Henry Parker, *Observation upon some of his Majesties late Answers and Expresses* (London, 1642); Margaret Atwood Judson, *The Crisis of the Constitution: An Essay in Constitutional and Political Thought in England, 1603-1645*(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49), pp. 425-426, 435; Michael Mendle, “Parliamentary Sovereignty: A Very English Absolutism”, Nicholas Phillipson and Quentin Skinner (eds.), *Political Discourse in Early Modern Britain*(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4), pp. 116-118.

전쟁에서 보댕의 이름과 주권은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데, 특히 헨리 파커(Henry Parker)의 『인민의 법』(*Jus Populi*, 1644)이나 윌리엄 프린(William Prynne)의 『의회와 왕국의 주권』(*Sovereign Power of Parliaments and Kingdomes*) 등은 이 시기 잉글랜드에서 주권 개념이 활용된 다양한 방식을 보여준다. 『인민의 법』보다 먼저 작성되었고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작”<sup>11)</sup>으로 평가받는 『국왕 전하의 최근 대답에 대하여』(*Observations upon some of his Majesty's late answers and expresses*, 1642)에서 파커는 의회의 입법행위에 대한 국왕의 비판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주권적 권력이 어딘가에 있어야만 한다면 “의회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다”는 다소 소극적인 주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혁명 시기 국왕의 부재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강조하면서도 국왕의 권력 자체를 문제시하지는 않았는데 의회와 국왕이 모두 주권자라는 보댕의 주권 개념에 따르면 모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취할 뿐이다. 그러나 파커의 이러한 태도는 1644년에 이르면서 보댕의 일원론적 주권론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태도의 변화에는 혁명적 상황이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했겠지만 동시에 내전 기간 보댕의 주권 개념에 대한 잉글랜드인들의 ‘유연한’ 활용방식을 암시한다.

잉글랜드 작가들의 보댕 활용 사례에 대해 글렌 버지스는 크게 네 가지 범주를 구분한다.<sup>12)</sup> 첫 번째 용례는 사례의 활용이다. 보댕의 저작, 특히 『국가론』은 역사적, 지리적 사례들의 방대한 보고였고 이는 보댕의 사상에 동조하는 자이건 반대하는 자이건 간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오아시스와 같았다. 두 번째 용례는 권위의 활용이었다.<sup>13)</sup> 보댕의 명성과 『국가론』은 자신의 주장에 무게를 더하고자 했던 잉글랜

11) Nigel Smith, *Literature and Revolution in England, 1640-1660*(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4), p. 179.

12) Glenn Burgess, “Bodin in the English Revolution”, Howell A. Lloyd (ed.), *The Reception of Bodin*(Leiden: Brill, 2013), pp. 387-407.

13) Conal Condren, *The Status and Appraisal of Classic Texts: An Essay on Political Theory, Its Inheritance, and the History of Ideas*(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5), pp. 191-194, 255-285.

드 작가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에드워드 레이(Edward Leigh)의 『종교와 학문, 종교인과 학자 편람』(1656)에서 보댕은 “가톨릭교도이지만 독창적이며 사려 깊은 저자”로서 “가톨릭교도만큼이나 신교도들에게도 중요하면서도 유용한 주석을 제공한다”고 소개되고 있다. 『편람』은 보댕에 대한 대조적인 평가들을 언급하는데 예를 들어 포세비노(Posevino)가 신교도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보댕의 『역사방법론』을 비판했다든지 이에 맞서 네덜란드 신교도인 기베르트 보에트(Gijsbert Voet)가 포세비노를 비판했다든지, 티코 브라헤가 보댕의 역사적 오류를 지적했다거나, 오귀스트 드 투(Jacques-Auguste de Thou)가 보댕에 대해 “가장 주목할 만한 현학자”로 묘사했다는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sup>14)</sup> 어쨌든 『편람』은 보댕이 이 시기 널리 알려진 사상가였으며,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행위는 그것이 보댕의 이론에 동조하건 반대하건 간에 어느 정도의 권위를 부여했다는 점을 알려준다. 세 번째 용례로 버지스는 상징 또는 아이콘으로서의 활용 사례를 구분한다. 이 경우 보댕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의 상징으로 이용되는데, 저자들은 특정 정치 집단을 표현하기 위해 보댕을 언급한다. 이는 보댕의 명성과 평판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보댕의 위치는 다소 애매모호하고, 두 번째 용례와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네 번째는 창조의 원천으로서의 용례이다. 창조의 원천이란 보댕의 이론을 두고 벌어진 독창적인 - 때로는 자의적인 - 지적 참여, 즉 보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전유와 적용을 의미한다. 이는 사상사 연구가 주로 찾고자 하는 유형의 영향과 수용일 것인데, 물론 그것은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순수한’ 형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키너가 지적했듯이 이를 정제하는 일은 극히 어렵다.<sup>15)</sup>

14) Edward Leigh, *A Treatise of Religion & Learning and of Religious and Learned Men, Consisting of Six Books, The Two First Treating of Religion & Learning, The Four Last of Religious or Learned Men in an Alphabetical Order*(London: Charles Adams, 1656), p. 139.

15) “Meaning and Understanding in the History of Ideas”, James Tully (ed.), *Meaning and Context: Quentin Skinner and His Critics*(Cambridge: Cambridge

보댕의 인용의 대부분은 1-3번 범주, 즉 권위나 아이콘의 활용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3번의 유형은 보댕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표식으로서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먼저 주목되는 작가는 필머이다. “보댕 없는 필머는 상상할 수 없다”<sup>16)</sup>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그는 아마도 보댕의 영향이 가장 뚜렷하게 확인되는 인물일 것이다. 보댕의 『국가론』은 『절대적인 왕권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가부장권론』(*Patriarchia*, 1680)<sup>17)</sup>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등장한다. 놀즈(Knolles) 번역본의 발췌본인 『절대적인 왕권의 필요성』은 두 종류의 표지를 갖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저자를 무명씨로 소개한 반면, 다른 하나는 “제네바 교회가 신교도로 소개한 장 보댕”을 저자로 제시한다. 주로 의회파의 논지를 반박하기 위해 선택된 구절들로 구성된 이 책에서 필머는 주권이 “어떠한 법에도 종속되지 않는 절대적인 권력”이며 국왕이 “자신의 백성에게 법을 부여하고” 불필요한 법을 폐지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보댕은 국왕이 “법으로부터 해방된 자”이며 “주권 군주가 법을 지켜야한다는 의무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한 인물로 소개된다. 한마디로 필머는 국왕에 반대하던 의회파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원본의 애매모호함을 제거시킨 『국가론』의 정제물을 추출해냈고 “어떠한 코먼웰스도 귀족과 민중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라던가, “주권의 권리가 분할된 국가는 결코 코먼웰스라고 불릴 수 없다”와 같은 구절을 통해 의회 권력의 정당성을 부정하였다.

---

Univ. Press, 1988), pp. 45-47; revised version in Skinner, *Visions of Politics*, 3 vols.(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2), vol. 1, pp. 74-76; Quentin Skinner, “The Limits of Historical Explanation”, *Philosophy*, 41(1966), pp. 199-215.

16) James Daly, *Sir Robert Filmer and English Political Thought*(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9), p. 22. 프랑스 절대주의 사상의 영향에 대해서는 Cesare Cuttica, “Anti-Jesuit Patriotic Absolutism: Robert Filmer and French Ideas (1580-1630)”, *Renaissance Studies*, 25(2011), pp. 559-579.

17) 필머의 『가부장권론』이 출간된 것은 1680년이지만, 실제 집필은 1620년대에 시작되어 내전 발발 이전에 완성되었다. Robert Filmer, *Patriarcha and Other Writings*, J. P. Sommerville (ed.)(Cambridge Univ. Press, 1991), pp. 172-183.

그러나 이 팸플릿이 중요한 것은 단지 번역자가 발췌한 내용들 때 문만이 아니다. 필머가 보댕에 대해 언제나 무비판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보댕을 저자로 밝히고 있는 판본은 보댕의 권위를 끌어들이려는 시도로 읽힌다. 필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그가 보댕을 제네바의 칼뱅교도로 밝힌 것은 보댕의 권위를 통해 칼뱅주의를 앞세운 의회파에 대한 우회적인 공격으로 읽힐 수 있다. 보댕의 권위와 아이콘으로서의 입지는 우선 그의 높은 학식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필머의 사례는 보댕의 종교적 정체성을 변용하면서까지 그의 권위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물론 가장 자주 부각된 것은 보댕의 정치적 해안과 관용적 태도였다. 종교적 온건주의자로서 보댕의 평판은 종종 정치적 식견의 온건함에 대한 강조로 이어졌다. 국왕파인 찰스 달리슨(Charles Dallison)은 윌리엄 프린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보댕을 “진중한 정치인”<sup>18)</sup>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당시 널리 공유된 견해인 것처럼 보인다. 1659년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 역시 보댕의 온건함을 강조하면서 그를 “학문에 조예가 깊은 가톨릭교도”, “온건한 가톨릭”, “프랑스의 판사”, “가톨릭, 프로테스탄트를 통틀어 유럽에서 가장 저명한 법률가이자 정치사상가”로 소개한다. 보댕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만일 잉글랜드 신교도들이 보댕만큼 학식을 갖추었다면 그들도 필시 보댕과 유사하게 정치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취할 것이며, 만일 잉글랜드 프로테스탄트들이 그렇지 못한다면 그들이 보댕만큼 명민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함축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알튀시우스가 보댕을 절대군주론자라고 비난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백스터는 보댕이 폭군을 가장 “끔찍한” 존재로 규정하고 폭군을 살해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한다.<sup>19)</sup>

18) Charles Dallison, *The Royalist's Defence Vindicating the King's Proceeding in the Late Warre Made Against Him*(London: s.n., 1648), p. 65.

19) Richard Baxter, *The Second Part of the Nonconformists Plea for Peace*(London: John Hancock, 1680), Preface, sig. A4vo-b2. 백스터는 종교전쟁에 대한 보댕의

종교적·정치적 문제에서 보맹의 온건함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 이는 프랑스 ‘정치파’의 이미지가이기도 하다 - 1643년 토머스 풀러(Thomas Fuller)에 의해서 다시 반복된다. 그는 자신을 중도적인 입장의 온건주의자로 주장하면서, 보맹의 권위를 끌어들이는다. “교회 개혁에 대한 귀하의 글은 토머스 부처보다는 보맹에 가깝습니다. 귀하의 글은 종교적 저작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저작이고, 섭리가 아닌 이성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sup>20)</sup> 자신에 대한 이 같은 비평을 인용하면서 풀러는 “우리가 보맹을 조금만 닮을 수 있다면, 것처럼 유능한 정치가가 될 수 있다면, 지배자와 백성의 행복한 조화에 기여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라고 결론짓는다.

보맹의 정치 저술이 차례로 국왕과 의회파를 거쳐 궁극적으로 웨이커교도가 된 윌리엄 펜(William Penn)의 논지를 뒷받침하는데 인용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sup>21)</sup> 하나의 아이콘 또는 권위에 의거하는 일은 논쟁적 가치가 있다. 보맹의 견해가 언급되는 주제 목록은 절대주권, 폭군정, 혼합군주정, 저항, 주권의 제한(조세를 포함하여), 교회제도 등인데 이는 보맹 자신의 지적 관심만큼이나 찰스 1세의 권위와 그에 대한 저항과 관련된 현재적 논쟁의 주요 이슈들을 반영하고 있었다. 어쨌든 정형화된 보맹의 인용은 잉글랜드 혁명기 정치저작에서 보맹이 지적인 권위 내지 아이콘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잉글랜드 혁명기의 저술들은 단순한 권위의 활용 이외에 사상의 전이, 변형의 흔적, 혹은 창조적

---

부정적인 입장을 언급하는 것 역시 잊지 않는다.

- 20) Thomas Fuller, *Truth Maintained, or, Positions Delivered in a Sermon at the Savoy Since Traduced for dangerous, Now Asserted for Sound and Safe*(London: s.n., 1643), “To the unpartiall Reader”, sig. C2vo.
- 21) Marchamont Nedham, *The Case of the Commonwealth of England, Stated*, Philip A. Knachel (ed.)(Charlottesville VA: Folger Shakespeare Library/Univ. Press of Virginia, 1969), pp. ii, 32, 85, 101, 107; William Penn, *Considerations Moving to a Toleration and Liberty of Conscience with Arguments Inducing to a Cessation of the Penal Statutes Against All Dissenters Whatever, Upon the Account of Religion*(London: R. Hayhurst, 1685), p. 10.

전유의 흔적을 보여준다. 그것은 보댕의 주권 개념을 알지 못했다면 결코 형성될 수 없었을 사상적 맹아들이다.

### III. 창조적 전유의 시도

잉글랜드에서 국왕의 절대적인 권력 개념을 주장하기 위해 국왕과 선전가들이 보댕을 활용했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국왕과 작가들은 일찍부터 보댕을 이용했고, 이들과 보댕의 주권론 사이의 친연성은 당연시되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국왕과 저자들에게도 보댕의 이론은 그들이 원하던 이론적 틀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았다. 보댕의 이론은 잉글랜드의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맞춰 고안된 것이 아니었다.

보댕이 “절대적인” 그리고 “주권”이라는 용어에 부여한 해석이 유포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지만, 이 개념은 잉글랜드인들이 그들의 왕에게 적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던 개념이었다.<sup>22)</sup> 주권을 법적 통제에 종속되지 않으며 타인의 의지로부터 자유로운 권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잉글랜드에서 과연 그러한 권력을 지닌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했다. 만일 왕이 주권자라면 의회와 법에 종속될 수 없었다. 의회안의 왕 개념이 이 정의에 가장 근접했지만, 의회 역시 법 아래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가. 따라서 보댕의 주권 개념은 잉글랜드 헌정질서를 이해하는 전통적 방식에 대한 도전으로 읽힐 수 있었다. 보댕은 “군주정을 민주정과 귀족정에 결합하는 것”이 “명백하게 모순되고 절대적인 주권 개념과 양립할 수 없으며 자연적인 법과 이성에 위반된다”<sup>23)</sup>고 강조하지 않았던가. 잉글랜드 의회에 대해서도 그는 “주권은

22) 16세기 유럽에서 왕과 인민, 교회와 국가 사이의 갈등은 절대주의를 예찬하거나 이에 대한 저항을 옹호하는 일련의 저술 목록을 만들어냈다. 저술 목록에 대해서는 John Neville Figgis, *Political Thought: from Gerson to Grotius 1414-1625*(NY: Harper Torchbooks, 1960) 참조.

23) 장 보댕,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82쪽.

불가분의 상태로 잉글랜드 왕에 속하고 신분회의는 단지 지켜볼 뿐”이며 “군주의 주권은 신분회의의 존재 때문에 결코 변경되지 않는다”<sup>24)</sup>라고 평가한 바 있다.

결국 찰스 1세와 의회가 충돌했던 시기에 보댕의 주권 개념은 잉글랜드인들에게 당황스런 사안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문제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러한 애매모호함을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1643년 필립 헌튼(Philip Hunton)은 “의회에서 발생한 중요한 논쟁의 최종 결정권에 대한 질문은 의회 구성 요소 중 무엇이 절대적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면서, “만일 [이 문제를]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미결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이 낫다”<sup>25)</sup>라고 말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1643년 왕과 의회 사이에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 이러한 미결상태는 유지될 수 없었다.

잉글랜드인들에게 내전은 적이 없는 이상한 전쟁이었지만<sup>26)</sup> 혁명의 진행과정은 이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논쟁의 초점도 정치적 사건에 따라 변화했다. 1641년까지 핵심적인 논쟁거리는 국왕이 법과 백성에 종속되지 않는 절대적인 주권자인가의 문제였다. 왕이 런던을 탈출한 이후 논쟁의 초점은 의회가 국왕 없이도 기능할 수 있는가, 심각하게 축소된 채 여전히 웨스트민스터에 남아있던 하원을 진정한 의회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로 변화했다. 전쟁을 지속하면서 왕과 의회 모두 그들의 단독 통치권을 주장해야 했지만 이는 의회에게 더 어려운 일이었다. 의회는 찰스 스튜어트와 싸우면서 왕과 의회의 이름으로 통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왕은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에 필수적인 요소였고 왕이 없는 의회는 입법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간주되었다.

24) 같은 책, 276쪽.

25) Philip Hunton, *A Treatise of Monarchy containing Two Parts. I. Concerning Monarchy in General, II. Concerning This Particular Monarchy*(London, 1643), pp. 69, 73.

26) Richard Ollard, *This War without an Enemy: A History of the English Civil War*(London, 1976), p. 85.

17세기 초 잉글랜드인들은 자신들의 균형 잡힌 정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세기말 그들이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자유와 권위의 균형이었다. 그러나 혁명 기간 동안, 저울의 눈금은 어느 한 방향으로만 기울었고 분쟁, 내전, 혁명, 복고, 분쟁, 그리고 혁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의 길이 펼쳐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왕, 의회안의 왕, 상·하원, 하원, 법, 그리고 인민에 이르기까지 잉글랜드 정부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자신의 주권에 대한 주장을 전개하였다.

내전 초기 국왕과 주요 선전자들인 홉스, 클라렌튼을 주축으로 한 그레이트 튜 씨클(Great Tew Circle)에<sup>27)</sup> 속한 존 스펠만(John Spelman) 경은 잉글랜드가 “주권적 제국이며 국왕의 왕관은 황제의 관”이라고 주장하면서도<sup>28)</sup> 잉글랜드의 고유한 보통법 전통을 부정하지는 않았다.<sup>29)</sup> 스펠만은 의회파인 헨리 파커의 『한 인쇄본에 대한 견해』(*A View of a Printed Book*)를 반박하면서 보당을 활용한다. 파커는 국왕이 비록 백성 개개인보다 우월하지만(*singulis major*) 전체보다는 하위라는(*universis major*), 즉 전체를 이루는 인민, 그리하여 그들의 대표인 의회보다 하위라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스펠만은 『국가론』 1권 8장과 2권 5장, 특히 국왕에 대한 백성의 저항권을 부정하기 위해 『국가론』 2권 5장을 인용했는데, 예를 들어 “국왕의 오만함을 제한하기

27) Hugh Trevor-Roper, *Catholics, Anglicans and Puritans: Seventeenth Century Essays*(London: Secker & Warburg, 1987), chap. 4; Perez Zagorin, “Clarendon and Hobbes”, *Journal of Modern History*, 57(1985), pp. 593-616; Sarah Mortimer, “Great Tew Circle (act. 1633-1639)”, *Oxford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http://www.oxforddnb.com/view/theme/69884>]

28) John Spelman, *The Case of Our Affaires, in Law, Religion and Other Circumstances Briefly Examined, and Presented to the Conscience*(Oxford: H.H. for W.W., 1643), pp. 1-4.

29) 이들 국왕파의 정치적 사유에 대해서는 C. C. Weston & J. R. Greenberg, *Subjects and Sovereigns: The Grand Controversy over Legal Sovereignty in Stuart England*(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1), chap. 4; John Sanderson, “But the People’s Creatures”, in *The Philosophical Basis of the English Civil War* (Manchester: Manchester Univ. Press, 1989), chap. 2 & 3.

위해” 칼뱅이 스파르타의 에포르 제를 언급한 것은 귀족정과 민주정 국가에 관한 것이지 군주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분석이 “박식한 신교도 담론의 정수”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sup>30)</sup>

확실히 스펬만은 주권이 국왕에게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보댕을 이용했지만 보댕의 활용은 16세기 프랑스와는 다른 콘텍스트, 즉 앨런 크로마티가 “입헌주의 혁명”으로 정의한 콘텍스트에 의해 변형된다. 스펬만은 왕정을 합법적이며 법에 종속된 정체로 묘사한다.<sup>31)</sup> 그는 사실 두 가지 모순적인 개념, 즉 단일하며 저항을 인정하지 않는 불가분의 주권이 국왕에게 있지만, 국왕은 절대적이지 않고 법에 따라 지배해야 한다는 두 가지 입장을 조화시키려 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후자의 주장을 옹호하기에 보댕의 주권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스펬만은 첫 번째 입장에 대한 자신의 논지가 법과 무관한 군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는 “왕국의 권리와 관습이 왕과 전체 인민에 의해 겹쳐히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군주정·귀족정·민주정이 “혼합된” 국가가 폭군의 등장으로부터 가장 안전한데, 이는 “어떠한 구속이나 제한이 없을 때 절대적인 권력은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자체의 파괴로 귀결되기 때문이다.”<sup>32)</sup> 스펬만은 잉글랜드 정부가 불가침한 국왕 주권을 보존하면서도 의회를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왔다고 주장한다.

우리 국가(State)에서 국왕의 절대 권력은 법의 선포와 제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한된다.[...] 법 선포에 있어서 국왕은 통상 법을 선포하

30) John Spelman, *A View of a Printed Book Intituled Observations upon His Majesties Late Answers and Expresses*(Oxford: Leonard Lichfield, 1642), pp. 28-29.

31) Alan Cromartie, *The Constitutional Revolution: An Essay on the History of England 1450-1642*(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6), pp. 238-239, 264-269.

32) John Spelman, *Certain Considerations Upon the Duties of Prince and People* (Oxford: Leonard Lichfield, 1642), pp. 19-21.

기 위해 학문적 규범과 지식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의 판사들에 의지해야 한다. 이 판사들은 관련 법정에서 적법한 판결을 내리는 법의 해석자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과 판결을 통해 이들은 국왕과 백성을 하나로 묶어준다.[...] 법 제정에 있어서도 국왕의 절대권력은 귀족과 평민의 동의 없이는 실질적인 법의 권위를 가질 수 없다.[...]33)

스펠만의 보댕 활용법은 프랑스 산 주권 개념이 수입 상태 그대로 적용되기 힘든 섬나라의 정치적 콘텍스트를 반영한다. 실제로 스펠만과 같은 이른바 ‘입헌주의 국왕파’에 의한 보댕의 인용은 일종의 뼈꾸기 탁란과 같은 역할을 해서 조만간 알에서 부화한 새끼 새는 대리모와 등지를 왜소하게 보이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필머와 같은 급진적인 국왕파 저자들은 국왕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보댕의 주권 개념을 끌어들이었지만<sup>34)</sup> 국왕파 저자들 중 일부는 보댕이 때로 지나치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생각했다. 1643년 그리피스 윌리엄스(Griffith Williams)는 국가 형태(절대군주제)와 정부(혼합정부)를 구별하는 보댕의 관점이 우스꽝스러운데다 위험하다고 생각했다.<sup>35)</sup> 『불복종과 반란의 장애물』(*Stumbling-Block of Disobedience and Rebellion*, 1644)에서 그는 초기 국왕파가 지나치게 온건하다고 비판하며 보댕에 대한 해석을 강화한다. 그는 잉글랜드의 “절대군주제는 확고하며, 의회는 국왕의 권력과 권위를 조금도 손상시킬 수 없”으며, “가장 위대한 프랑스 정치파 인사인 보댕이 우리의 국왕을 바로 이러한 서유럽 절대군주로 분류”<sup>36)</sup>했음을 강조한다. 1647년 출간된 로버트 그로스(Robert Grosse)는 『종교와 충성』(*Religion and Loyalty*)에서 “최근 작

33) John Spelman, *The Case of Our Affaires*, pp. 3-4.

34) 1640년대 국왕파의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는 Glenn Burgess, *British Political Thought 1500-1660: The Politics of the Post-Reformation*(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09), pp. 203-225.

35) J. H. M. Salmon, *French Religious Wars in English Political Thought*(Oxford: The Clarendon Press, 1959), p. 95.

36) Peter Heylyn, *The Stumbling-Block of Disobedience and Rebellion, Cunningly Laid by Calvin in the Subjects Way, Discovered, Censured, and Removed*(London: Henry Seile, 1658), p. 249.

가들 중 보맹은 국왕 권력을 시민과 백성에 대한 절대적이며 영속적인 권위이며 어떠한 법에도 종속되지 않는” 힘으로 정의한 바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러한 힘에는 “코먼웰스의 필요에 따라 법을 제정하고 폐지하는 권력”이 포함되는데, 군주의 권리는 폐지될 수도 분할될 수 없으며, 백성은 이러한 권리를 지키고 그들의 군주를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1640년대 초 스펀만이 보여준 개념적 이중성의 경계를 뛰어넘어 국왕과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한 보맹의 재해석 시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발견되는 보맹의 주권 개념의 활용, 즉 의회파 작가들에 의한 활용 사례이다. 물론 의회파가 보맹의 주권론을 활용한 사례는 국왕파 저작에 비해 그 빈도가 낮은 편이다. 헨리 파커(Henry Parker)나 필립 헌튼(Philip Hunton)과 같은 의회파 저자들이 보맹을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sup>37)</sup> 가장 적극적이었던 인물은 윌리엄 프린이다. 『의회와 왕국의 주권』에서 그는 모두 63회에 걸쳐 보맹을 인용했는데, 이로 인해 반대파로부터 “그릇된 인용”으로 비판받은 바 있었다.<sup>38)</sup> 특히 그가 보맹을 저항권의 옹호자로 인용한 부분이 주요 반박의 대상이 되었다. 이중 몇 가지, 먼저 1642년 6월 의회파가 제시한 19개 제안 중 추밀원 의원들의 임명권에 대한 의회의 주장을 옹호하는 장면을 보자.

훌륭한 정치가인 장 보맹은 고위관직자의 선출권이 주권적 권리에 포함되지 않음을 입증한 바 있다. 왜냐하면 이 권리는 종종 백성에 의해 행사될 수 있으며, 이때 군주는 선출된 인물을 인정하고, 이들 없이는 어떠한 권력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회가 국왕에게 법령이나 특별 허

37) J. H. M. Salmon, *French Religious Wars in English Political Thought*, pp. 82-85, 98-99.

38) 헤일린은 국왕의 권위와 대의제 기구 사이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국가론』에 제시된 많은 사례들을 활용하면서, 의회파의 윌리엄 프린이 보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Peter Heylyn, *The Stumbling-Block of Disobedience and Rebellion, Cunningly Laid by Calvin in the Subjects Way, Discovered, Censured, and Removed*, p. 259.

가장을 통한 승인권을 남겨두는 한, 의회가 추밀원 의원, 고위관리, 법관을 선출하고 임명하는 행위는 국왕의 권위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sup>39)</sup>

사실 이 부분은 프린의 책 제목에 비추어볼 때 전혀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의회가 요구하는 것이 주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보댕의 주권론을 인용하고 있는 다음 구절은 이와 대조적이다.

장 보댕에 따르면 절대적인 주권 군주의 표식은 누구의 동의 없이 백성에게 법을 부여한다는 데에 있다. 만일 군주가 자신보다 더 강력한 존재의 동의를 받아야 법을 제정할 수 있다면 그는 군주가 아니라 신하에 불과할 것이다.[...] 그것이 상원이건, 신하이건, 인민이건 간에 자신보다 하위의 존재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면 그는 결코 주권자가 아니다.[...] 의회를 떠나서는 법을 제정할 수도, 세금을 징수할 수도, 보통법을 폐지할 수도 없는 잉글랜드 왕은 결코 절대적인 주권 군주가 아니며 단순히 혼합적 정부에 속하는 정치적인 존재일 뿐이다. 그 존재는 법과 유일한 입법자인 의회보다 하위에 위치하며[...]<sup>40)</sup>

요약하자면 프린은 보댕이 정의한 절대적 주권의 표식을 결여한 잉글랜드 왕은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잉글랜드 코먼웰스를 지배하는 절대적 주권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이 절대적 주권의 소재가 의회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이러한 프린의 해석은 보댕의 주권 개념을 적절하게 적용한 사례로 볼 수도 있지만 『국가론』에서 잉글랜드를 절대군주국이라고 정의한 보댕의 해석에 배치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 그리고 프린의 경우는 잉글랜드에서 주권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주권 개념

39) William Prynne, *The Sovereigne Power of Parliaments and Kingdomes Divided into Foure Parts, Together with an Appendix*(London: Michael Sparke, Senior, 1643), Part II, “The Parliaments Right to Elect Privie Counsellours, Great Officers, and Judges”, p. 45.

40) *Ibid.*, Part I, “The Treachery and Disloyalty of Papists to their Sovereignes, both in Doctrine and Practice”, pp. 46-47.

자체가 아니라 주권의 소재였으며, 개념 정의에 대한 논의는 부차적인 문제였을 뿐임을 암시한다.

#### IV. 나오며: 잉글랜드의 법사상과 보맹의 주권

1640년 진정한 코먼웰스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홉스는 통일되고, 저항이 불가하며 무제한적인 주권 없이는 코먼웰스가 존재할 수 없다는 보맹의 개념을 인용했다. 하지만 홉스의 희망과 달리 잉글랜드 코먼웰스는 16세기 이래 “인간의 본성과 존엄함에 따라 시민의 삶을 덕에 의해 통치하는 어떤 나라, 도시에 함께 모인 다수의 사람들의 번영하고 가장 완벽한 상태”<sup>41)</sup>(Thomas Starkey), 또는 “평화시나 전쟁 시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공통의 약속과 계약에 따라 결합한 다수의 자유민들이 구성한 사회 또는 공통의 행동”<sup>(Thomas Smith)</sup> 등으로 정의되어 왔고 이중 어디에도 주권의 필요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강조된 것은 인민의 삶의 조건,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뿐이었다. 17세기에 이르러서도 잉글랜드 코먼웰스는 관습적이며 태곳적부터 존재해 온, 그리하여 주권의 영역을 벗어난 보통법에 의해 질서가 보장되는 세계를 상징하고 있었다.

잉글랜드인에게 균형과 상보성, 특히 국왕의 특권과 인민의 자유 사이의 균형, 백성에 대한 왕의 의무와 왕에 대한 백성의 의무 사이의 균형은 그들이 갖고 있던 헌정질서의 장점으로 여겨졌다. 이는 일종의 계약으로 이해되었고,<sup>42)</sup> 따라서 잉글랜드 정부는 당시 가장 안정

41) Thomas Starkey, *A Dialogue between Pole and Lupset*, Thomas F. Mayer (ed.)(London: Camden 4th series, vol. 37, 1989), p. 38.

42) Margaret Judson, *The Crisis of the Constitution: An Essay in Constitutional and Political Thought in England, 1603-1645* (Rpt. NY, 1964) & *From Tradition to Political Reality: A Study of the Ideas Set Forth in Support of the Commonwealth Government in England, 1649-1653*(Hamden: Archon Books, 1980); J. G. A. Pocock, *The Ancient Constitution and the Feudal Law: A Study of English Historical Thought in the Seventeenth Century: A Reissue with a Retrospect*(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7). 보다 최근의 연구로는 J. H. Burns and Mark

적인 형태의 정치체로 간주된 세습군주정의 형태를 띠면서도, 그 이상의 무언가를 내포하고 있었다. 왕의 권력은 왕국의 법과 관습에 의해 제한되었고 과세와 입법은 토지 보유자들의 동의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왕과 신분 대표들로 구성된 의회는 잉글랜드 정부가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적절한 혼합이라는 그들의 믿음을 보증하는 근거로 간주되었다.<sup>43)</sup> 비록 1605년 화약음모사건 직후 계약이론과 혼합정부의 개념들은 신중하게 은폐되었지만 이 두 이론은 1630년대 말에 다시 부상했다.<sup>44)</sup> 따라서 혼합정부의 가능성을 부정한 보당의 입장은 그의 개념을 활용하려는 사람들에게

---

Goldie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1450-1700*(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5); John Kenyon, *The Stuart Constitution: 1603-1688*, 2d ed.(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6); J. P. Sommerville, *Politics and Ideology in England: 1603-1640*; Michael Mendle, *Dangerous Positions: Mixed Government, the Estates of the Realm, and the Making of the Answer to the XIX Propositions*(Alabama: Alabama Univ. Press, 1985); John Morrill, *The Nature of the English Revolution*(London, 1993), and John Morrill, Paul Slack, and Daniel Woolf (eds.), *Public Duty and Private Conscience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Essays Presented to G. E. Aylmer*(Oxford, 1993); Quentin Skinner,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Cambridge, 1978), especially vol. 2, chap. 9; Skinner, "History and Ideology in the English Revolution," *Historical Journal*, 8, no. 1(1965), pp. 151-78; Corinne Weston, *English Constitutional Theory and the House of Lords, 1556-1832*(New York, 1965), and Corinne Weston and Janelle Greenberg, *Subjects and Sovereigns. The Grand Controversy over Legal Sovereignty in Stuart England*(Cambridge, 1981); David Wootton (ed.), *Divine Right and Democracy. An Anthology of Political Writing in Stuart England*(Cambridge: Hackett Pub. Company, 1986; London, 1986); David Wootton, "From Rebellion to Revolution: The Crisis of the Winter of 1642/3 and the Origins of Civil War Radicalism," *English Historical Review*(1990), pp. 654-669; Richard Tuck, *Philosophy and Government, 1572-1651*(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3); and J. G. A. Pocock (ed.), with Gordon Schochet and Lois Schwoerer, *The Varieties of British Political Thought, 1500-1800*(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3).

43) Michael Mendle, *Dangerous Positions*, pp. 2-3; Markku Peltonen, *Classical Humanism and Republicanism in English Political Thought, 1570-1640*(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5).

44) David Wootton (ed.), *Divine Right and Democracy*, p. 30.

게는 근본적인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의회와 왕의 관계는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 의회는 입법권과 징세권을 공유하고 있었고 의회안의 왕은 잉글랜드 정부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의회는 여러 면에서 왕정의 창조물이기도 했다. 왕은 의회 소집과 해산 시기를 결정했고 모든 법은 왕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을 발휘했다.<sup>45)</sup> 게다가 왕은 하원의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왕국의 최고 법정이었으며, 법을 제정하고 법을 해석하고, 왕의 조언자 역할을 수행했다. 의회 안에 “왕국 전체, 왕국의 모든 구성원이, 개인으로서 또 대표로서, 의회 안에 출석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sup>46)</sup>는 이상에 따라 잉글랜드인들은 의회를 그들의 오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수단으로 간주했다. 의회를 구성하는 세 신분은 정부의 세 가지 형태와 일치된다고 간주되었는데, 여기에서 왕은 신분중의 하나로, 다른 신분은 상원과 하원으로 대표되었다. 의회는 “국왕과 함께 입법의 동등한 파트너”였고<sup>47)</sup> 이는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 이후 잉글랜드 왕들에 의해 적어도 32번이나 재확인된 원리였다.<sup>48)</sup> 그리고 1642년 비록 마지못한 것이긴 했지만 의회의 19개 제안에 대한 답변에서 찰스 1세는 다시 한번 이 원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찰스 1세가 군주정을 의회의 세 신분 중 하나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왕이 세계의 동등한 신분중 하나로 간주된 것은 왕이 아니라 의회안의 왕이 주권자라는 입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 다른 난점은 바로 잉글랜드의 법 전통이었다. 보댕의 주권 개념

45) 의회는 1601년 소집되었고, 1604-1610년 사이 5차례 회기를 가졌으며, 다시 1614, 1621, 1624, 1625, 1626, 1628-1629, 그리고 1640년에 두 차례 소집되었다.

46) The Succession Act, I, Jac. I, C. I, cited by John Kenyon, *The Stuart Constitution: 1603-1688*, p. 21.

47) Corine Weston, “England: Ancient Constitution and Common Law”, J. H. Burns (ed.), *The Cambridg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1450-1700*(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1), pp. 393-394.

48) *Ibid.*, p. 379.

은 신법 이외의 그 어떠한 지배 권력에 대한 구속도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법과 관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보댕은 주권과 법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법과 관습의 관계로 확대한 바 있다. 프랑스의 왕령지가 브르타뉴, 부르고뉴, 프로방스, 나바르, 프랑쉬콩테로 확대되면서 지역적 관습과 독립적인 도시, 고등법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도량형과 화폐를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점에 대해 보댕은 “법은 관습을 파괴할 수 있지만, 관습은 법을 위반할 수 없”으며, “관습은 군주의 인정에 의해서만 효력을 갖는다”<sup>49)</sup>라고 설명한다. 반면, 일찍이 영토적 통일성을 갖춘 잉글랜드 왕정은 중세 이래 그리고 블랙튼의 영향 하에 전통적으로 보통법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잉글랜드의 보통법은 신이 아닌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었고 지속적으로 변화했지만 그럼에도 태곳적부터 존재해 온 권리이자 관습으로 간주되었다. 이 법은 결코 왕의 선물이 아니었으며 노르만 정복 시기에도 흔들림이 없었던 권리로 여겨졌다.<sup>50)</sup>

이에 따라 17세기 잉글랜드 법사상의 토대를 제공한 존 포테스큐(John Fortescue)는 완전한 군주정(*dominium tantum regale*)인 프랑스에 반해 잉글랜드는 정치적 군주정(*dominium politicum et regale*) 국가라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프랑스의 왕이 ‘군주의 뜻이 곧 법’이라는 로마법적 관점에 따라 법을 제정하고 과세권을 행사했다면 잉글랜드에서 그와 같은 권력은 ‘의회안의 왕’에 의해 행사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그런 점에서 잉글랜드의 왕은 포테스큐의 정의대로 ‘정치적인’ 존재였다. 잉글랜드 의회는 토머스 스미스 경의 말처럼, “머리와 몸을 포함한 왕국 전체의 권력을 갖고” 있었고, “모든 잉글랜드 인민이 실제로 또는 위임과 양도를 통해 의회 내에 존재한다”고 여겨졌으며 “의회의 승인은 모든 사람의 동의로 간주”<sup>51)</sup>되었다. 물론 포테스

49) 장 보댕,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404쪽.

50) J. G. A. Pocock, *Ancient Constitution and the Feudal Law*; Skinner, “History and Ideology in the English Revolution”, pp. 151-178.

51) Thomas Smith, *De Republica Anglicorum*, Mary Dewar (ed.)(Cambridge: Cambridge

큐의 정치적 군주정 개념은 난해한 정치신학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칸토로비츠에 의하면 포테스큐의 [공적 존재로서의] 군주정 개념은 삼위일체나 성찬식의 신학 그리고 교회법에서 발전한 개념들을 전유하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인 것처럼 잉글랜드 코먼웰스는 “국왕의 신비한 몸”이라는 난해한 논리로 정의되었다. 물론 포테스큐는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연상시키는 왕의 두 신체의 - 필멸의 운명을 지닌 국왕 개인의 육체와 영원히 죽지 않는 왕국의 정치체로서의 몸 - 대립과 모순이 잉글랜드의 보통법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설사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갈등과 대립을 내포한 잉글랜드 정치체는 적어도 17세기까지는 프랑스에서 형성된 주권 개념이 뿌리를 내리기에 부적절한 토양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댕이 없었다면?’이라는 역사적인 물음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17세기 중반 잉글랜드의 정치적 논의는 혁명이라는 역동적인 콘텍스트에 영향을 받았지만 어쨌든 그 영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보댕의 주권론은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보댕의 주권 개념은 정교한 잉글랜드 근대국가의 틀 속에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은 정치적 구호로 정의되어 정치적 대립 상황 속에서 정치권력의 최종적 소재의 문제로 환원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선문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투고일자: 2016. 12. 28, 심사일자: 2017. 1. 17, 게재확정일자: 2017. 1. 17〉

▶ **주제어** : 장 보댕(Jean Bodin), 영국혁명(English Revolution), 주권(Sovereignty), 의회안의 왕(King in Parliament), 보통법(Common Law)

## 참고문헌

## 1. 1차 문헌

- 장 보댕,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I, 나정원 역(아카넷, 2013).
- Baxter, Richard, *The Second Part of the Nonconformists Plea for Peace* (London: John Hancock, 1680).
- Dallison, Charles, *The Royalist's Defence Vindicating the King's Proceeding in the Late Warre Made Against Him*(London: s.n., 1648).
- Filmer, Robert, *Patriacha and Other Writings*, J. P. Sommerville (ed.)(Cambridge Univ. Press, 1991).
- Fuller, Thomas, *Truth Maintained, or, Positions Delivered in a Sermon at the Savoy Since Traduced for dangerous, Now Asserted for Sound and Safe*(London: s.n., 1643).
- Heylyn, Peter, *The Stumbling-Block of Disobedience and Rebellion, Cunningly Laid by Calvin in the Subjects Way, Discovered, Censured, and Removed* (London: Henry Seile, 1658).
- Hobbes, Thomas, *The Elements of Law, Natural and Politic*, Fernand Tönnies (ed.)(1889; reprint London: Frank Cass, 1969).
- Hunton, Philip, *A Treatise of Monarchy containing Two Parts. I. Concerning Monarchy in General, II. Concerning This Particular Monarchy*(London: s.n., 1643).
- Leigh, Edward, *A Treatise of Religion & Learning and of Religious and Learned Men, Consisting of Six Books, The Two First Treating of Religion & Learning, The Four Last of Religious or Learned Men in an Alphabetical Order*(London: Charles Adams, 1656).
- Parker, Henry, *Observation upon some of his Majesties late Answers and Expresses*(London, 1642).
- Penn, William, *Considerations Moving to a Toleration and Liberty of Conscience with Arguments Inducing to a Cessation of the Penal Statutes Against All Dissenters Whatever, Upon the Account of Religion*(London: R. Hayhurst, 1685).
- Prynne, William, *The Sovereigne Power of Parliaments and Kingdomes Divided into Foure Parts, Together with an Appendix*(London: Michael Sparke, Senior, 1643).

- Smith, Thomas, *De Republica Anglicorum*, Mary Dewar (ed.)(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9).
- Spelman, John, *A View of a Printed Book Intituled Observations upon His Majesties Late Answers and Expresses*(Oxford: Leonard Lichfield, 1642).
- \_\_\_\_\_, *Certain Considerations Upon the Duties of Prince and People* (Oxford: Leonard Lichfield, 1642),
- \_\_\_\_\_, *The Case of Our Affaires, in Law, Religion and Other Circumstances Briefly Examined, and Presented to the Conscience*(Oxford: H.H. for W.W., 1643).

## 2. 연구문헌

- 임승휘, 「16세기 후반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국가 개념 비교연구: 토머스 스미스(Thomas Smith)와 장 보댕(Jean Bodin)의 국가론을 중심으로」, 『이화사학』 53집(2016).
- Burgess, Glenn, “Bodin in the English Revolution”, Howell A. Lloyd (ed.), *The Reception of Bodin*(Leiden: Brill, 2013).
- \_\_\_\_\_, *British Political Thought 1500-1660: The Politics of the Post-Reformation*(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09).
- Condren, Conal, *The Status and Appraisal of Classic Texts: An Essay on Political Theory, Its Inheritance, and the History of Ideas*(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85).
- Cromartie, Alan, *The Constitutionalist Revolution: An Essay on the History of England 1450-1642*(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6).
- Cuttica, Cesare, “Anti-Jesuit Patriotic Absolutism: Robert Filmer and French Ideas (1580-1630)”, *Renaissance Studies*, 25(2011).
- Daly, James, *Sir Robert Filmer and English Political Thought*(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9).
- Figgis, John Neville, *Political Thought: from Gerson to Grotius 1414-1625*(NY: Harper Torchbooks, 1960).
- Franklin, Julian, “Jean Bodin and the End of Medieval Constitutionalism”; Giesey, Ralph E., “Medieval Jurisprudence in Bodin’s Concept of Sovereignty”, H. Denzer (ed.), *Jean Bodin: Verhandlungen der internationalen Bodin Tagung in München*(München: Verlag C. H.

- Beck, 1973).
- Judson, Margaret Atwood, *The Crisis of the Constitution: An Essay in Constitutional and Political Thought in England, 1603-1645*(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49).
- Kern, Fritz, *Kingship and Law in the Middle Ages*, S. B. Chrimes (trans.) (Oxford: Blackwell, 1968).
- McRae, Kenneth Douglas, “Bodin’s sense of nationality”, in *Jean Bodin: actes du colloque interdisciplinaire d’Angers*(Angers: Presses l’Univ. d’Angers, 1985).
- Mendle, Michael, “Parliamentary Sovereignty: A Very English Absolutism”, Nicholas Phillipson and Quentin Skinner (eds.), *Political Discourse in Early Modern Britain*(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4).
- Mortimer, Sarah, “Great Tew Circle (act. 1633-1639)”, *Oxford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http://www.oxforddnb.com/view/theme/69884>]
- Nedham, Marchamont, *The Case of the Commonwealth of England, Stated*, Philip A. Knachel (ed.)(Charlottesville: Folger Shakespeare Library/Univ. Press of Virginia, 1969).
- Ollard, Richard, *This War without an Enemy: A History of the English Civil War*(NY: Atheneum, 1976).
- Parker, David, *Class and State in Ancien Régime France: The Road to Modernity?*(London: Routledge, 1986).
- Peltonen, Markku, *Classical Humanism and Republicanism in English Political Thought, 1570-1640*(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5).
- Salmon, J. H. M., “The Legacy of Jean Bodin: Absolutism, Populism or Constitutionalism?”,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17(1996).
- \_\_\_\_\_, *French Religious Wars in English Political Thought*(Oxford: The Clarendon Press, 1959).
- Sanderson, John, “But the People’s Creatures”, in *The Philosophical Basis of the English Civil War*(Manchester: Manchester Univ. Press, 1989).
- Skinner, Quentin, “The Limits of Historical Explanation”, *Philosophy*, 41(1966).
- \_\_\_\_\_, *Visions of Politics*, 3 vols.(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2).
- Smith, Nigel, *Literature and Revolution in England, 1640-1660*(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94).
- Starkey, Thomas, *A Dialogue between Pole and Lupset*, Thomas F. Mayer (ed.)(London: Camden 4th series, vol. 37, 1989).

- Trevor-Roper, Hugh, *Catholics, Anglicans and Puritans: Seventeenth Century Essays*(London: Secker & Warburg, 1987).
- Weston, C. C. & Greenberg, J. R., *Subjects and Sovereigns: The Grand Controversy over Legal Sovereignty in Stuart England*(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1).
- Weston, Corine, “England: Ancient Constitution and Common Law”, J. H. Burns (ed.), *The Cambridg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1450-1700*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1).
- Wood, Ellen Meiksins, *The Pristine Culture of Capitalism: A Historical Essay on Old Regimes and Modern States*(London: Verso, 1991).
- Zagorin, Perez, “Clarendon and Hobbes”, *Journal of Modern History*, 57(1985).
- \_\_\_\_\_, *Rebels and Rulers, 1500-1600*(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2).

## 〈Résumé〉

**Jean Bodin et la notion de souveraineté dans la Révolution anglaise: la réception et assimilation du concept de la souveraineté de Jean Bodin**

Seunghwi LIM

L'absence du concept de la souveraineté dans le discours politique d'Angleterre a mis au grand jour le modèle distinctif de formation de l'Etat. Quand Jean Bodin a formulé le concept 'moderne' de souveraineté, le Commonwealth d'Angleterre, considéré le premier l'Etat moderne, ne montrait aucun effort de la conceptualisation de cette notion. Introduit à la fin du XVI<sup>e</sup> siècle, la 'souveraineté' de Jean Bodin a été activement utilisée par les auteurs royalistes et parlementaires. Mais les concepts de 'King in Parliament' et Common Law ont constitué un unique contexte politique dans lequel la souveraineté de Bodin ne pouvait être appliquée en tant que tel. Il est certain que le discours politique du milieu du XVII<sup>e</sup> siècle a été influencé par le dymisme révolutionnaire et la théorie de Bodin. Mais ce concept n'a pas montré 'un pas en avant', attendu dans le Commonwealth 'moderne' d'Angleterre.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Jean Bodin and the Sovereignty in the English Revolution: Reception and Assimilation of Jean Bodin's Sovereignty**

Seunghwi LIM

The absence of a clear conception of sovereignty in English political discourse reveal its distinctive pattern of state-formation. England is acknowledged to be the first modern state. However, England's 'common wealth' failed to provide a clear definition of modern sovereignty. Although English political writers began to incorporate Jean Bodin's concept of modern sovereignty into their doctrine, England's unique political landscape prevented the foreign idea from penetrating too deep into English people's mind. The 'King of Parliament' had its political system based on common law and superior parliament, which directly conflicted with Bodin's appraisal of sovereignty. By mid 17th century England's political landscape was being transformed by revolution, and Bodin's concept of modern sovereignty certainly played a role in shaping England's restructured political landscape.